

강경애론(姜敬愛論)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A thesis on Kang Kyeong-ae: Focusing on the writer's consciousness

김낙현*

국문요약 본고의 목적은 1930년대 치열한 현실 인식을 근간으로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을 선보였던 강경애(姜敬愛)의 작가의식을 고찰하는 데 있다.

강경애가 어린 시절 겪은 극도의 빈궁은 그의 작가의식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빈궁으로 인해 그의 어머니는 개가하여 비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빈궁에 대한 그의 의식은 고통을 당하는 여성의 수난과 이에 대한 여성해방 의식을 담은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다. 또한, 그가 반제반봉건의 계몽운동을 전개했던 근우회(勤友會) 회원이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자였던 강경애의 남편 장하일(張河一)은 문학적 소양을 꽤 갖추고 있었으며, 이러한 그의 남편은 강경애의 이념적 동지이자 문학적 반력자로서 강경애의 작가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강경애는 식민지 현실을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식하면서, 그 속에서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민중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애착을 표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강경애의 문학 이념의 지향점은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무산계급의 해방이었다.

핵심어 강경애(姜敬愛), 작가의식, 빈궁, 장하일, 무산계급 해방

- 차례**
- 들어가는 말
 - 전기적 생애와 작가의식
 - 작품에 표출된 작가의식
 - 맺음말

카프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그의 작품에서 나타난 의식은 상당히 프로문학에 기울어진 경향을 보였다.

강경애는 당대 평자들로부터 '건실한 리얼리즘 작가'¹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런가 하면 김팔봉은 '소시민적 자유주의의 한 갈래인 사실주의 계열의 작가'²라고 하였다가, 1년 뒤에는 박화성과 함께 프롤레타리아 측의 여성 작가³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어쨌든 강경애 문학의 성격은 그가 직접 카프에 가입한 적은 없었지만, 그의 문학은 분명히 프로문학과 동계에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강경애 문학의 특이성은 그의 다수의 작품이 서울의 중앙문단

1. 들어가는 말

강경애(姜敬愛, 1907~1943)는 1930년대 치열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문학 활동을 전개한 작가이다. 그는 1931~1938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 중앙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1 백철, 「여류문학의 수준」, 『조선신문학사조사』, 백양당, 1949, 337쪽. 이 무영, 「여류작가개평」, 『신가정』, 1934.2, 67쪽.

2 김팔봉, 「조선문단의 현재 수준」, 『신동아』, 1934.1, 46쪽.

3 김팔봉, 「舊殼에서의 탈출」, 『신가정』, 1935.1, 79~80쪽.

과는 거리가 먼 간도를 배경으로 창작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상기하고, 이 글은 강경애의 전기적 생애를 검토하면서 그의 작가의식의 형성배경이나 토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그의 작품에서 표출된 작가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한 작가의 작품세계의 본질을 정당하게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의 현실적 삶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작품에 구현된 문학적 형상화는 어떤 형태로든 그 작가의 현실적 삶과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서 표현되기 때문이다. 단 한 편의 작품일지라도 그 작품은 반드시 작가의 개인적 체험과 사상 및 현실과의 대응 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작가의식을 천착하는데, 유효한 방법론은 어떤 작가의 전기적 생애와 문학 활동 사이에는 어떤 환경적 요인과 그 개인의 기질적 특성이 교류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강경애의 전기적 생애를 재구⁴하여 검토하고, 일부 작품을 대상으로 그의 작품에서 표출된 작가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전기적 생애와 작가의식

2.1. 유년기와 학창시절

강경애(姜敬愛)는 1907년 황해도 송화에서 태어났으며, 5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생계가 어려운 나머지 어머니가 개가하여 강경애가 7세 때 고향을 떠나 황해도 장연으로 이사하게 된다.

5세에 아버지를 여윈 나는 일곱 살에 고향인 송화를 등지고 장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어머니는 생계가 곤란하시므로 더구나 장차 의지할 아들도 없고 다만 딸자식인 나를 믿고 언제까지나 살아가실 수는 없는 고로 개가를

4 강경애의 전기적 기록은 이규희, 「강경애론」(이화여대 대학원 석사 논문, 1974)과 이상경, 「강경애 연구」(서울대 대학원 석사 논문, 1984)를 중심으로 재구하였음을 밝힌다.

하셨던 것입니다.⁵

이때 의부에게는 16세 정도 되는 아들과 강경애보다 한 살 위인 딸이 있었는데 강경애는 이들로부터 심한 구박과 팔시를 받았다. 다음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려주고 있는 그의 수필 「나의 幼年時節」(1933)이다.

의붓아버지에게는 소생 아들딸이 있었으니, 그들이 어찌나 세차고 사납던지, 거의 날마다 어린 나를 때리고 꼬집고 머리를 태를 뜯어서 도저히 나는 집에 붙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만 빨래나 혹은 어디 볼 일로 집에 안 계시면 언제나 쫓겨나서 울 뒷산에 올라 망연히 어머니가 오시기를 기다리곤 하였다.⁶

강경애 어머니의 개가 원인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그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극도의 가난 때문이었다. 개가의 원인은 전술한 그의 수필 「나의 幼年時節」에서 추정할 수 있으며, 이 자료는 개가의 원인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도 하다. 어머니의 개가는 그녀의 어머니가 자의적으로 원해서이기보다는 가난으로 인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개가하기 전에, 그의 가족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가는 다음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아버지를 여윈 우리 모녀는 어느 산골에 사는 고모를 찾아갔고 고모네 집 옆방살이를 하게 되었으며 그만큼 우리는 곤궁히 지내므로 해서 하루의 두 끼니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하였던가 싶다. (중략) 배만 고프면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서

5 강경애, 「나의 幼年時節」, 『신동아』, 1933.5. 이상경 편, 『강경애 전집』, 소명출판, 1999, 73쪽. 앞으로 강경애의 작품은 이 책에서 인용하기로 하며, 간략히 쪽수만 제시하기로 한다.

6 강경애, 「自叙小傳」, 『조선여류단편집』, 조광사, 1939; 이상경 편, 앞의 책, 788쪽.

못 견디게 졸라대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딱하여서 나를 어르고 달래다 못해서 나의 뺨을 찰싹 때리면, 나는 죽는 듯이 울었고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나를 업으시고 소나무에 기대어서 한참씩이나 우두커니 섰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어떤 날은 하도 조르니까 물오른 솔가지를 뚝 꺾어서 껌질을 벗기고 하얀 가락 같은 대를 나의 입에 물려주었다. 거기는 달콤한 진액이 발려 있었다.⁷

이러한 빈궁으로 인한 어머니의 개가는 훗날 ‘인신매매’의 모티브로 작용하여 「어머니와 딸」(1931.8~1932.12), 「同情」(1934), 「痲藥」(1937) 등과 같이 그의 소설에서 곧잘 등장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 같은 체험은 가난한 민중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으로까지 확장하게 된다.

한편 강경애는 일찍부터 문학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8살 때 의부가 보다가 놓아둔 『春香傳』에서 한글을 깨치고 『삼국지』, 『옥루몽』 등을 독파하여 동네에서 ‘도토리 소설쟁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소학교 때부터 문학에 관한 관심이 상당했으며, 작문 실력이 뛰어나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그는 친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문학에 대한 그의 열정은 대단했던 것 같다.⁸

이후, 강경애는 1921년(14세)에 형부(이복언니의 남편)의 도움으로 평양 숭의여학교에 입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당시 가난으로 인해 학비를 형부에게 의존한 강경애는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다.

기숙사 생활에서 다소 나의 기분이 명랑하여졌으나 그리

나 여전히 풀이 죽어 한편 옆에 섰기를 잘하였다. 먼저 무엇이든지 주장해본 적이 없고, 동무들의 의견을 꺾어본 적이 없이, 아주 유약한 채 동무들의 뒤만 따랐다.

동무들에게 학비가 오면 좋아서 참새처럼 뛰고 저들의 친한 동무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사다 먹으며 기뻐하는데, 형부에게서 오는 학비를 받아 쥘 나는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거워지고, 반가우면서 어인 일인가 눈물이 나서 그날 밤을 자지 못하고 달빛만이 흰 비단처럼 깔린 교정에서 왔다 갔다 하였다.⁹

이때의 학교생활은 그의 작품 「月謝金」(1933.2)이나 「原稿料 二百圓」(1935.2)에서 형상화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듬해인 1922년(15세)에 강경애는 평양 숭의여학교 3학년 재학 중 ‘학생맹휴(學生盟休)¹⁰’을 주도한 이유로 퇴학을 당하게 된다. 이 사건은 당시 식민지 현실에 대한 강경애의 의식의 지표를 뜻한 것이며, 동시에 그가 지녔던 문제의식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된다.

2.2. 양주동과의 만남과 결별

강경애는 1923년 장연에서 양주동을 만나게 된다. 강경애의 생애에서 양주동과의 인연은 그의 문학에 대한 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는 강경애는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양주동의 글에서 그 만남의 경위와 강경애에 대한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스무살 직후 청년期の 「글벗」이요 「애인」이었던 K와 내가 처음 만나 젊음과 인생과, 詩와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

7 강경애, 「내가 좋아하는 솔」, 이상경 편, 앞의 책, 793~794쪽.

8 강경애, 「故郷의 蒼空」, 『신가정』, 1935.5. “문예란 말만 들어도 나는 입을 헤하고 벌리던 그때라 신문이나 잡지권을 애써 얻어들여 가지고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붙잡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의 이러한 행동에 불만하셔서 항상 꾸지람을 하시며 일감을 내놓아 나로 하여금 책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의 글에서 문학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경 편, 앞의 책, 759쪽.

9 강경애, 「自叙小傳」, 『조선여류단편집』, 조광사, 1939; 이상경 편, 앞의 책, 789쪽.

10 ‘학생맹휴’는 일제의 총독 통치 권력과 식민지 교육을 거부하는 민족 감정의 발로였다. 일본인 교원 배척, 무자격 교원 배척, 시설 충실 등을 이유로 내세워 행동했다. 당시 학생맹휴 운동의 성격은 대체로 민족주의와 자유사상에 입각하여 전개되었고 좌익적 경향에 의한 맹휴가 부각된 것은 1924년 이후의 일이다. 정세현, 「6·10 만세운동」, 『한국근대사론』 2, 지식산업사, 1977, 409~410쪽.

위낙 이러한 보슬비 내리는 봄밤이었다. K는 나와 같은 고향 C邑産, 그때 평양 S여학교 三학년 생이었다. 내가 一九二三年三月, 日本의 유학에서 봄방학에 잠시 歸郷하였었다. (중략) 그날 저녁—비오는 봄밤이었다. 내가 강연을 끝내고 會를 탈퇴하고 돌아와 지친 몸을 쉬며,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선구자」의, 아니, 청춘의, 인생의 「외로움」에 흠뻑 젖어 있는데, 뜻밖에 한 어린 「여성」이 나를 방문하여 왔다. 그때만 하여도 시골서는 젊은 남녀 학생의 자유로운 교제와 방문이 비난되고 주저되는 터인데, 이 앙퉁하고 대담한 소녀는 어두운 저녁에 비를 철철 맞으며 單身으로 홀랑 멧새같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나한테 다소곳이 가벼운 禮를 하고 나서 내 「연설」에 무척 감복되었단 말, 또 내 주장에 온통 共鳴한다는 말을 하고, 다짜고짜로, 『선생님, 나 영어 좀 가르쳐줘요! 그리고 詩도, 문학도. 전 중학교 三年生, 아무것도 아직 몰라요. 그러나 문학적 소질은 담뱃가졌으니, 좀 길러 주세요.』

나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이어 자기 가정과 「소질」과 「포부」를 도도히 饒舌로 재갈여 나가는데, 그 똑똑하고, 야무지고, 앙큼한 품이 몹시 귀엽다. 그 참새같이 작은 몸, 빛나는 눈, 흰칠한 이마, 낭랑한 목소리—나는 一見 그녀가 「才媛」이상의 문학적 天分の 소질이 충분히 있음을 看破했다. (중략) 그 날밤 그녀의 간청에 의하여 나는 그녀에게 「영어」 문법의 대강을 온통 무던히도 열심히 가르쳐주고, 이어 西歐 문학과 詩人들의 이야기도 흠뻑 들려주었다.¹¹

1924년(18세) 강경애는 고향 장연을 등지고 양주동을 따라 서울로 상경하였고, 청진동에서 둘은 동거를 하였다.¹² 이때 양주동은 시지(詩誌) 『金星』을 간행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시절 강경애는 주로 시를 공부하고 있었다. 양주동의 회고에 의하면 강경애는 처녀작이라 할 수 있는 「책 한권」¹³이란 시를 자신에게 보여주었으며, 『金星』 제3

호(1924.5)에 「姜珂瑪」란 이름으로 ‘독자 시’ 항목에 그 시를 실어 주었다고 한다. 양주동은 이 시의 내용을 스승이자 애인인 자신을 주제로 한 “나이브한 시상”을 표현한 내용¹⁴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 시의 내용을 보면 외로움과 슬픔을 독서욕으로 위안 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그 시절까지만 해도 작품상에서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저항과 같은 현실 참여적인 성격은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그 후 강경애는 소설로 전향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양주동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 그의 최초의 소설이라 할 수 있는 「황혼의 설움」(미발표)을 읽고 양주동은 소설로 전향할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이 작품은 지면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양주동의 회고에 따르면 강경애 자신의 일과 운명을 쓴 눈물겨운 처절한 작품이었다고 한다.¹⁵ 결과적으로 강경애는 양주동을 통해 문학과 사상 책을 섭렵하였으며, 체계적인 문학 수업 과정을 밟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1924년 가을 9월 1일 『金星』이 폐간될 무렵 결별로 이어지게 되었다.¹⁶

두 사람이 결별한 원인으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으나, 임현영은 둘의 결별의 원인으로 양주동의 중도론적 절충주의 문학(또는 복고적 중도론적 국민 문학론)으로부터의 이념적 독립을 위한 강경애의 진로 모색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¹⁷ 그러나 이것은 강경애 문학의 성격 규정 면에서 비판적 리얼리즘 또는 프롤문학의 동계로 파악하여, 결국 결과론적 당위성에 근거

때마다 볼 때마다 내 가슴은/끝도 없는 영원의 나라를 그려봅니다/그 책은 비록 헤어졌으나/헤어지면 헤어질수록/나는 더욱 더욱 귀여워 합니다(3연)/나는 가난하고 또 외롭습니다/그러나 나에게 사랑하는/이 책 한 권이 있습니다/오 나는 행복됩니다”(4연). 이상경 편, 앞의 책, 796~797쪽.

14 강경애의 머리에 쌓가마가 있어 그녀의 아명을 ‘가마’라 했다고 한다. 양주동, 앞의 책, 153쪽.

15 양주동, 앞의 책, 155쪽.

16 양주동, 『文, 酒半生記』, 신태양사, 1960, 22쪽.

17 임현영, 「비판적 사실주의의 소중한 열매」, 임현영·오현주, 『강경애전집』, 열사람, 1988, 312쪽 참조.

11 양주동, 「春宵抄-문학少女 K의 追憶」, 『人生雜記』, 탐구당, 1962, 146~147쪽.

12 위의 책, 153쪽.

13 이 시는 총 4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3연과 4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볼

하여 결별의 원인을 결론짓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결별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해명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 당시 강경애는 양주동으로부터 한창 문학 수업을 받고 있었다. 아직 문학에 있어 이념적인 차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할만한 이론적 토대도 갖추지 않았던 상태였다. 양주동과 이별한 직후 강경애가 쓴 「가을」(1925.11)이라는 시에서 가을을 맞이하여 1년 전 가을에 헤어진 양주동을 그리워하고 있으며¹⁸ 그 어떤 이념적 색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만약 이념적 차이로 결별을 했다면 이별 직후 양주동에 대한 그리움의 감수성이 짙은 시를 창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후, 강경애가 이념적인 문제로 양주동을 통렬하게 비판한 것은 훨씬 뒤늦게 나타난다. 강경애가 확실히 이념적으로 무장하게 된 것은 양주동과 결별 후 장연으로 귀향하여 야학운동과 근우회(槿友會)¹⁹에 가입하여 문학 활동을 했던 때부터이다. 그리고 나중에 강경애의 남편이 되었던 지하 활동가 혹은 주의자(主義者, 의식분자)인 장하일(張河一)을 만나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강경애는 더욱 견고하게 의식화되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한 근거로는 첫째, 1924년 양주동과 결별 후, 5년 뒤인 1929년에 발표한 「廉想涉氏의 論說 ‘明日의 길’을 읽고」와 1931년에 쓴 「梁柱東君의 新春評論-反駁을 위한 反駁」에서 강경애는 양주동의 부르주아적인 의식과 절충주의 문학을 신랄하게 비난했던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이 시기 즉 1931년과 1932년에 발표된 시의 경향도 이전 시기의 서정적인 시와는 달리 「오빠의 편지회답」²⁰(1931.12)과 「참된 어머니가 되어

주소서」²¹(1932.12)와 같이 상당히 이념적인 색채가 짙은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 시는 노동운동을 하다가 잡혀간 오빠와 가난으로 인해 빛 때문에 팔려간 딸이 ‘× ×회의’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상당히 계급적 색채가 농후한 작품이다. 그렇다면 강경애와 양주동의 결별원인은 둘 사이의 이념적 차이로 인해서 비롯된 것보다는 그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양주동의 말 그대로 ‘어떤 뜻 아닌 불행한 일’로 결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1924년 양주동과 이별 후 한참 뒤에 위의 글에서처럼 양주동의 문학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염상섭은 ‘과학문명의 발달로 예술이 대중화되면 문예의 예술적 가치가 떨어지니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계로부터 해방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강경애는 다음과 같이 비판을 가하게 된다.

무산계급의 ××! 약소민족의 ××! 상섭씨 말과 같이 기운 풀 차고 어깨춤 나오는 말이다. 그러나 자유, 평등, 박애라는 말은 하지도 말 것이다. 부르조아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류적 결합의 원리로 내놓은 사기적 표어요, 썩은 그들의 무기이니, 아무 소용 없기 때문이다. 현대 과학문명은 온전히 유산계급이 독점하고 그 혜택을 입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엔진, 치차, 모터 내지 전기, 모든 과학문명의 이기를 응용하여 견성(堅城)과 포루(砲壘)를 쌓고 무산계급 진지에 육박하여 살생, 약탈, 능욕의 폭위를 마음대로 부린다. 금일로

한 번 못 드러 보고/쌀독 밑을 굶으며 몇 번이나 입에 손 물고 울었는지요/오빠! 그러나 이 누이도/언제까지나 못나게서리 우는 바보는 아니랍니다/지금은 공장 속에서 제법 고무신을 맨답니다/ (중략) 오빠! 기뻐해 주세요 이 누이는/옛날의 수집던 가슴을 불쑥 내밀고/수많은 내 동무들의 앞잡이가 되어/얼굴에 피가 올라 공장주와 ××답니다. 이상경 편, 앞의 책, 800~801쪽.

21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지금에 알고 보니/빛값에 이 딸을 파셨다고요/삼백 냥에 이 딸을 파셨다고요/그러고도 그 돈 한푼 어머니 손에/못 쥐어 보셨다고요(5연)/어머니/이 딸은 ××회의 한 사람이 되었답니다/그래서 이젠/어머님도 대추나무도 그리지 않아요?/이 눈은 ××회 때문에 빛나고요/이 팔이 다리는 굶어지고 있답니다(7연). 이상경 편, 앞의 책, 803~804쪽.

18 「가을」의 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뒷문으로 가만히 바라다 보니/누런빛 사이로 나무꾼 아해/곰방대를 찬 나무꾼 아해/가을에 벗님을 찾으려 해(3연)/매해 가을마다 울었더니만/뒷 창문 옆에서 울었더니만/떨어지는 낙엽 좇아 울었더니만/지금은 그 가을이 또 왔어요(4연)

19 사회주의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계열 여성 지식인들의 연합조직. 반제반봉건, 여성계몽 운동론의 전개가 창립 취지였다. 한국여성운동 사상 가장 활발했던 근우회는 이후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게 된다. 박용욱, 「근우회의 여성운동과 민족운동」, 『한국여성사』, 정음사, 1975 참조.

20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중략) 오빠!/당신이 잡혀 가신 뒤 누이는/그렇게 흔한 인조고사 당기

명일, 계급적 투쟁은 점점 백열 내지 첩예화하여 간다. 기계 점령! 이것이 무산계급 약소민족 최후 승리다. 이것이야말로 ‘금일의 길’이요 또 ‘명일의 길’이 아닐까?²²

위의 글은 강경애의 의식성향을 명징하게 나타내어 그의 문학관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강경애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대립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경애는 한마디로 예술을 신격화하려는 염상섭의 태도를 부르주아적인 처사라며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였다. 동시에 강경애는 ‘예술은 인간사회를 초월할 수 없고 인간사회를 떠난 예술은 존재할 수 없으며, 예술은 민중화됨으로써 진정한 생명력을 갖게 됨’을 역설한다. 이러한 의식의 소산으로 그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적 문제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무엇보다도 민중(무산계급)의 빈곤과 궁핍함을 들었다.²³ 이와 같은 그의 의식은 그의 작품에서 빈궁으로 인하여 모순된 사회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민중의 참담함을 형상화하여 민중들의 삶에 연민과 동정을 표출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말하자면 그의 작가의식은 현실에 토대를 둔 사실주의로 경사되었던 것이다.

3.3. 장하일과의 결혼과 간도 체험

강경애는 공식적으로 1931년(24세) 『조선일보』에 단편소설 「破琴」을 발표하여 문단에 데뷔하였으며, 같은 해에 장하일과 결혼하여 간도로 이주했다. 강경애는 간도에서 『北郷』 동인으로 참여했으며²⁴, 1939년에는 『조선일보』 간도 지국장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병이 심해져서 남편 장하일과 함께 귀향하여 1943년 36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이 지점에서 강경애의 작가의식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 장하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

냐하면, 장하일은 문학과 생활에 있어서 강경애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에 그렇다. 장하일은 황해도 황주 출신으로 수원 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하고 장연 군청에서 근무하였다. 이때 장하일은 조흔한 아내를 멀리 두고 강경애의 집에 세 들어 살게 되었고, 두 사람은 연애를 거쳐 결혼하게 되었다.²⁵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된 장하일의 아내가 나타나게 되면서 두 사람은 장연에서 살기가 곤란하여, 둘은 장연을 떠나 인천에서 품팔이를 하며 지내다가 1931년 6월경 간도로 이주하게 되었다.

간도 용정으로 이주할 때, 장하일은 친구 김경재의 소개로 용정의 동흥중학교 교사직을 얻을 수 있었다. 김경재는 장하일과 동향으로 같은 수원 고등농림학교를 졸업했으며, 사회주의 단체였던 ‘화요회’, ‘북풍회’의 멤버였고, 1926년 제2차 조선 공산당 사건으로 검거되어 1929년 8월에 출옥한 바 있다. 출옥 후에 그는 『三千里』, 『彗星』, 『批判』 등에서 논객으로 활동했다.²⁶

이렇듯이 김경재와 장하일의 밀접한 교류 관계로 볼 때 장하일은 일종의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된 자이거나 혹은 항일 민족 운동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것은 당시 용정의 동흥중학교가 간도에서 항일 민족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의 근거지였던 사실을 고려해보면 더욱 그렇다. 또한, 해방 이후 장하일이 노동신문사에서 부주필로 일했다²⁷는 점은 그 신빙성을 한층 더 강화해준다. 강경애의 「破琴」(1931.1.27~2.3), 「蹴球戰」(1933.12), 「煩惱」(1935.6~7), 「어둠」(1937.1~2) 등에서 ‘주의자(主義者)’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거나 그 유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점은 남편 장하일의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

22 강경애, 「廉想涉氏의 論說 ‘明日의 길’을 읽고」, 이상경 편, 앞의 책, 707~708쪽.

23 위의 글, 709쪽.

24 안수길, 「용정, 신경시대」, 『한국문단이면서』, 깊은샘, 1983, 233쪽.

25 이상경은 강경애와 장하일의 만남과 결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 이무영의 부인인 고일신 여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고일신 여사는 장연출신으로 강경애의 친구의 동생이다. 강경애보다 다섯 살 아래였지만 문학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처녀 시절 강경애와 한 동네에서 각별히 가까웠다고 한다. 이상경 편, 앞의 책, 818쪽.

26 위의 책, 818쪽.

27 장하일은 1949년 노동신문사에서 부주필로 있으면서 『인간문제』 단행본을 펴내기도 했다. 이상경, 앞의 책, 820쪽.

된다.

한편, 안수길에 의하면 안수길은 장하일과 서로 술친구가 되어 만나면 진지하게 문학이야기를 했고, 책을 펴서 집히는 대로 글자의 운으로 시조 짓기를 했다고 한다.²⁸ 이로 보아 장하일은 상당한 정도의 문학적 소양을 갖춘 듯하다. 강경애는 「原稿 첫朗讀」(1933.6)에서 “글을 쓰게 되면 맨 먼저 남편에게 보이고 남편이 어느 구에 불만을 품고 말하면 직석에서 다시 펜을 잡아 고친다”라고 언급했는데, 이를 보아도 남편 장하일은 문학적 소양을 상당히 갖춘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경애는 “남편의 동지이면 끝나의 동지이고”²⁹라고 남편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진술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보아도 그에게 남편 장하일은 심리적 의존의 대상이면서 문학의 동료 더 나아가 이념적 동지였던 셈이다.

한편, 다수의 작품은 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당시 간도의 상황은 “피로 물든 봄”³⁰만큼 민중들의 생활은 비참했다.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나, 소위 인테리층 나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누구보다도 나는 이때까지 무엇을 배웠으며 무엇으로 입고 무엇으로 먹고 이렇게 살아왔다. 저들의 피와 땀을 사정없이 긁어모아 먹고 입고 살아온 내가 아니냐! 우리들이 배운다는 것은, 아니 배웠다는 것은 저들의 노동력을 좀더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더냐! (중략) 차라리 이 붓대를 꺾어버리자. 내기 쓴다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나는 이때껏 배운 것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내 붓끝에 씌어지는 것은 모두 이런 종류에서 좁쌀 한 알만큼, 아니 실오라기만큼 그만큼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저 한판에 박은 듯하였다. 학생들여여, 그대들의 연한 손길, 그 보드라운 흰 살결에 태양의 뜨거움과 돌의 굳음을 맞보지 않겠는가. 우리는 먼저 이

것을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튼튼한 일꾼, 건전한 투사가 되지 않으려는가.³¹

위의 글에서 강경애는 꺾박받은 민중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실에 뛰어들지 못한 자신을 “차라리 이 붓을 꺾어버리자”라며 글쓰기와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결국, 그는 학생들에게 민중들의 삶에 동참하여 “튼튼한 일꾼, 건전한 투사”가 되기를 촉구하기에 이른다. 강경애의 간도 실상에 대한 의식은 후에 간도를 배경으로 한 그의 작품에서 비참하고 처참한 민중들의 삶을 천착한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3. 작품에 표출된 작가의식

3.1. 빈궁과 여성해방 의식

『어머니와 딸』(1931~1932)은 강경애의 첫 장편소설이다. 『어머니와 딸』은 어머니의 삶과 딸의 삶을 대비하여 “時代的인 主題를 把握”하여 한 시기의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는 의의³²를 지닌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일종의 성장소설이라 할 수 있는 이 작품은 2대에 걸친 여성의 수난사와 그 속에서 한 여성 ‘옥이’가 자의식에 눈떠가는 과정을 그림으로써 근대적 여성관을 제시해 준 것이다. 어머니의 세대에 속하는 인물들은 소작인의 딸로서 가난 때문에 자신을 좋아하는 둘째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지주 ‘이춘식’의 소실로 팔려가는 ‘예쁜이’가 등장한다. 한편, ‘산호주’는 대학생 ‘강수’를 일본 유학까지 시키며 뒷바라지하지만, 기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끝내 ‘강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예쁜이’는 소실로 팔려갔다가 딸 하나를 낳은 후 ‘이춘식’에게 쫓겨 온다. 이 일로 ‘이춘식’에게 눈을 떴던

28 안수길, 앞의 책, 235쪽.

29 강경애, 「原稿料二百圓」, 『신가정』, 1935.2.

30 강경애, 「間島의 봄」, 『동아일보』, 1933.4.23; 이상경 편, 앞의 책, 730쪽.

31 강경애, 「間島를 등지면서, 間島야 잘 있거라」, 『동광』, 1932.8.10; 이상경 편, 앞의 책, 72쪽.

32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백양당, 1974, 337쪽.

‘예쁜이’ 아버지 ‘김창문’은 복수를 하려다 실패하여 감옥에서 죽게 되고 어머니와 동생은 강에 투신한다.

어머니의 세대로 대표되는 ‘예쁜이’와 ‘산호주’는 가부장적 봉건제도 하에서 현실에 무기력하게 체념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예쁜이’의 딸 ‘옥이’는 ‘산호주’의 민며느리가 되어 그의 아들 ‘봉준’의 아내가 된다. ‘옥이’는 봉건적인 윤리관에 충실한 여인이었으나, 점차 이를 자각하는 발전적인 인물로 나아간다. 남편이 신여성 ‘숙희’를 좋아하여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한다고 해도 남편에게 행복함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감행할 것 같은 여인이었다. 이러한 ‘옥이’의 봉건적인 사고 양식은 결말에서 급격히 전환된다.

바라보니 붉은 옷 입은 죄수들이 간수들에게 호위되어 지나갔다. 영실은 발길을 멈추고 섰다.

“오빠!”

얼굴 긴 사나이가 이편으로 힐끗 돌아보고 말없이 지나치는 것이었다.

영실은 무섭게 뛰는 가슴은 옥이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중략)

몇백 명이 노동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해 바친 영실 오빠.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정신이 바짝 들었다.

(중략)

“오빠가 맑고 간 이 길로 우리도 가야한다! 영실아!”

그의 음성이 떨려나왔다.³³

위의 인용문은 작가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남과 동시에 그만큼 기법상의 한계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사건 전개 상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영실’ 오빠에게 아무런 갈등 없이 ‘옥이’의 태도가 기울어지게 되는 것은 독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든다. ‘옥이’의 인식의 전환이 유기적인 인과

관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 평자가 지적한 대로 “경향적 색채를 띄운 작가가 대개 그러하지만 강씨 역시 언제나 칼같이 어떤 관념이 앞장섰기”³⁴ 때문이었다.

강경애는 후에 “사회적으로 완전한 경제적 개편을 보지 못하고는 완전한 여성의 해방도 볼 수 없다”³⁵라고 역설하며 여성의 수난과 해방을 위해서는 경제적 구조의 변혁이라는 근본적인 해결방식이 있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그의 의식은 그가 여성 독립운동 단체였던 ‘근우회(勤友會)’ 회원이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한다. 경제적 구조의 변혁을 통한 여성해방에 대한 의식은 한층 더 『어머니와 딸』(1931~1932)에서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이 소설은 강경애가 어렸던 시절, 궁핍한 생활로 인해 그의 어머니가 개가하여 비정상적인 가족을 형성했던 사실을 소재로 취한 작품이다. 이처럼 빈궁으로 인해 수난을 겪은 여성이 비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이룬 작품으로는 「同情」(1934.10)과 「痲藥」(1937.11) 등이 있다. 이러한 빈궁과 결부된 여성해방 의식은 강경애의 작품에서 자주 출현하며, 그의 작품세계의 근간을 형성하는 하나의 축이 되었다. 부연하자면, 「同情」에서 기생 ‘산월’은 12살 때, 그의 부모가 빚 때문에 팔아버렸는데, 그 후 그녀는 술집을 전전하며 온갖 고생을 하다가 끝내는 자살해버리는 서사를 담고 있다. 또한 「痲藥」에서는 마약 중독에 걸린 남편으로 인해, 중국인에게 팔린 한 여인이 탈출하려다가 매 맞아 죽는 처절한 사연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이들 작품은 ‘인신매매’의 모티브를 취해 빈궁과 결부된 여성들의 수난이나 그들의 비참한 삶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강경애의 여성해방 의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3.2. 소외된 민중의 삶에 대한 천착

강경애는 작가로서의 사명감과 예술에 대한 태도를 다

33 강경애, 『어머니와 딸』, 『해성』, 1931.8~1932.12; 이상경 편, 앞의 책, 121~122쪽.

34 이청, 「여류작품총관」, 『신가정』, 1935.11, 23쪽.

35 강경애, 「送年辭」, 『신가정』, 1933.12.

음과 같이 드러낸 바 있다. 작가로서의 사명감으로 “現實을 누구보다도 똑똑히 보고 또 解剖하여 가지고 作品을 통하여 一般大衆에게 나타내 보인 것”³⁶이라고 신념을 표했다. 또한, 예술에 대한 태도로 “藝術이란 그 自體가 民衆의 生活과 分離되면 價値가 없는 것”이라는 태도를 피력한 바 있다. 바로 이러한 의식의 소유자였기에, 그는 작품에서 당대 민중들의 삶에 대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소외된 민중들의 삶을 천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의식의 소산으로 탄생한 대표적인 작품이자 문제작³⁷으로 평가된 작품은 바로 「地下村」(1936.3.12~4.13)인데,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은 불구나 병자로 설정되어 그 비극성을 심화한다. ‘칠성이’는 원래 불구가 아니었으나 4살 때 경풍에 걸린 그를 가난하다는 이유로 의사가 진찰조차 해주지 않아 팔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신체가 되었다. ‘큰 년이’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아니었으나, 가난으로 인해 장님이 된 인물로 제시된다. 이런 인물들에 대한 신체 혹은 궁핍한 환경에 관한 묘사는 경악스러울 만큼 참담하기 그지없다.

아기는 언제 그 형갸를 찢었는지 반쯤 형갸이 찢어졌고 그 리로부터 쌀알같은 구더기가 설렁설렁 내달아오고 있다.

“아이구머니, 이게 웬일이야 웬, 이게 웬일이어!”

어머니는 외락 기어가서 형갸를 잡아 견으니 쥐가죽이 딸려 일어나고 피를 문 구더기가 아글바글 떨어진다.

“아가아가 눈 떠, 눈 떠라, 아가!”³⁸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地下村」은 “소설이 과연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러도 좋은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³⁹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처절하고 비통한 소외된 민

중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 「地下村」 이외에 소외된 민중들의 비참한 삶을 형상화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모자」(1935.1), 「해고」(1935.3) 등이 있다.

그런데 식민지 현실에서의 민중들의 처참한 삶의 실상을 그린 이들 작품에서는 그 어떤 민중들의 저항은 드러나지 않는다. 「地下村」의 ‘칠성이’, 「모자」의 ‘승호 어머니’, 「해고」의 주인공 ‘김서방’에게서 저항은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은 모두 불행한 삶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자각이 사회변혁의 주체적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의 의식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교육이 강조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한 민중들의 자각을 통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는 전망은 강경애의 대표작인 『인간문제』(1934)에서 제시된다.⁴⁰

3.3. 이념의 표출

1931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破琴」은 한 지식 청년이 암담한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는 이상과 그 실천을 놓고 변민하다가, 만주에 가서 민중들을 위해 투쟁을 하던 중에 끝내 죽음을 맞는다는 서사를 담고 있다.

주인공 ‘형철’은 여름 방학 동안 집에 와 머물게 되면서 식민지 농촌의 실상을 절감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지은 농사는 가을이 되면 다 빼앗기고 조밥 한술 먹기가 어려울 것이다. 마치 목장에서 기르는 소와 같다. 양과 같다. 돼지와 같다. 그들은 어떤 특수 계급 사람들에게 부리우기 위하여 살아 있다. 털과 젖과 고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살아 있다.⁴¹

위의 작품에서 식민지 농촌은 착취와 피착취의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인용문에 의하면 죽도록 힘을 다해 농

36 강경애, 「漁村點描」, 『조선중앙일보』, 1935.9.5.

37 김윤식, 『(속)한국근대작가논고』, 일지사, 1981, 243쪽.

38 강경애, 「地下村」, 『조선일보』, 1936.3.12~4.13; 이상경 편, 앞의 책, 633쪽.

39 김윤식, 『한국현대문학명작사전』, 일지사, 1979, 268쪽.

40 윤광옥, 「강경애 소설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전망」, 『한민족문화연구』, 한민족화학회, 2005, 172쪽 참조.

41 강경애, 「破琴」, 『조선일보』, 1931.1.27~2.3; 이상경 편, 앞의 책, 421쪽.

민들은 일하지만, 그것은 결국 '특수계급' 즉 지주나 부르주아의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한 노동력의 제공에 불과한 행위일 뿐이다.

'형철'은 그의 애인 '혜경'에게 자신의 법률공부가 이러한 식민지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아 포기해야겠다고 말한다. '형철'은 영웅 심리로 가득한 소수의 무리가 '대중을 이론으로 끌고 나가'려는 행위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러한 행위에 반발하여 무산계급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

“팍스나 레닌이니 다 무엇입니까? 벌써 지금은 그전 사람들의 이론으로 싸울 시대는 지났습니다. 대중은 창자를 쥐고 그들의 주린 것을 참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들의 하나이겠지요. 어서 나도 그들과 같이 싸워야 될 것을 요즘 와서 더욱 더욱 느끼게 됩니다.”⁴²

위의 작품에서 보이듯 '형철'은 '마르크스나 레닌의 이론'이 아닌 무산계급과 함께 어울려 직접 투쟁하는 실천적인 행동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 자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실천적인 행동을 전개하기 위해 '형철'은 가족과 함께 만주로 떠난다.

그런데 이 소설의 결말은 “그 후 형철이는 작년 여름 ××에서 총살을 당하였고, 혜경이는 ××사건으로 지금 ××감옥에서 복역 중이다”⁴³라는 서술로 끝을 맺는 매우 극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 소설이 발표된 때는 1931년이었는데, 이 해에 강경애는 용정으로 이주하였다. 이 점을 상기하면 「破琴」에서의 '혜경'은 강경애의 정신적 지향점을 단적으로 대변해주는 제2의 자아⁴⁴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주인공 '형철'의 의식 즉 이론으로만 무장한 지식인이 아닌 무산계급을 위해 투쟁하겠다는 '형철'

의 의식은 바로 강경애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지식인 상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소설은 '형철'을 통해 강경애의 이념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原稿料 二百圓」(1935)은 강경애의 직접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그의 이념을 드러낸 자전적인 소설이다.⁴⁵ 서간체 형식을 띤 이 작품은 주인공 '나'가 동생 K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토로하게 된다. 신문사에서 작품의 인지로 받은 거금 200원을 놓고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 '나'와 감옥에 간 동지를 도와주자는 남편(강경애의 남편 장하일이라고 판단됨)이 갈등을 일으킨다. 처음에 '나'는 가난으로 인해 가져 보지 못했던 '목도리', '구두', '반지' 등을 사려고 했으나, 남편의 말을 듣고 난 이후, 그것이 자신의 허영심을 깨닫고 남편의 의견을 따르게 된다. '나'는 자신의 인간적 본연의 욕망과 현실적 문제 사이에서 일으킨 갈등을 “돈으로 동지의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떳떳한 일이나. 더구나 남편의 동지임에랴. 아니 내 동지가 아니냐”라는 깨달음을 통해 극복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야기된 갈등은 사회적, 공적인 가치 즉 무산계급의 해방이라는 자신의 이념의 지향점을 추구함으로써 해소된다.

4. 맺음말

강경애(姜敬愛)는 어린 시절 빈궁으로 인해 그의 어머니는 개가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개가는 그의 작품에서 인신매매 모티브로 작용하는 동인이 되었다. 그는 평양 숭의여학교 재학 중, '학생맹휴(學生盟休)'을 주동한 사건은 강경애의 현실 인식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후, 양주동과의 만남은 그의 문학에 대한 꿈을 구체화하는

42 강경애, 앞의 글; 이상경 편, 앞의 책, 422쪽.

43 위의 글; 위의 책, 429쪽.

44 조남현, 「강경애 연구」, 『한국현대소설연구』, 민음사, 1987, 133쪽.

45 이 작품은 직접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창작된 소설이었기에 강경애의 남편 장하일의 친구 김경재가 실명으로 등장한다.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시를 창작하였으나, 양주동의 권유에 따라 소설로 전향하게 되었고, 이 시기에는 아직 강경애에게서 어떤 이념적인 색채는 표출되지 않았다.

강경애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식했으며, 예술이란 인간사회를 초월하거나 떠나서 존립할 수 없다는 문학관을 드러내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문학작품에서 무산계급인 민중들의 삶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작품에서 민중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동정, 애착 등을 투영하는 근본적인 동인이 되었다. 또한, 문학적 소양이 상당했던 사회주의자 장하일(張河一)과의 결혼은 강경애의 이념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며, 결혼한 직후 간도로의 이주한 체험은 그의 많은 작품의 배경이 간도로 설정된 결과를 낳았다.

강경애의 첫 장편소설 『어머니와 딸』(1931~1932)은 일종의 인신매매 모티브를 취한 것으로서, 빈궁으로 인해 여성이 겪는 수난을 형상화한 작품이며, 더 나아가 여성해방의식을 표출한 대표적인 작품이었다. 이와 같은 계열의 작품은 강경애가 반제반봉건사상을 바탕으로 한 여성 계몽운동을 전개했던 ‘근우회(勤友會)’ 회원이었던 점을 상기하면 더욱 쉽게 이해되는 사실이다. 아울러 그의 작품 「地下村」과 「모자」 「해고」 등의 작품은 참담하고 비참한 당대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대표적인 작품이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예술이란 민중의 생활과 분리되면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그의 문학에 대한 신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강경애는 「破琴」이나 「原稿料二百圓」 등의 작품에서 자신의 이념의 지향이었던 무산계급(민중)의 해방을 선명하게 표출하였다.

강경애는 당대 현실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그것을 비판, 해부하여 그의 작가의식을 표출한 작가로서, 그는 비판적 사실주의 또는 프로문학과 동케인 여성 작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상경 편, 『강경애 전집』, 소명출판, 1999.

2. 단행본 및 논문

김윤식, 『한국현대문학명작사전』, 일지사, 1979.

_____, 『(속)한국근대작가논고』, 일지사, 1981.

김팔봉, 「조선문단의 현재수준」, 『신동아』, 1934.1.

_____, 「舊殼에서의 탈출」, 『신가정』, 1935.1.

박용옥, 「근우회의 여성운동과 민족운동」, 『한국여성사』, 정음사, 1975.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백양당, 1949.

안수길, 「용정, 신경시대」, 『한국문단이면서』, 깊은샘, 1983.

양주동, 『文, 酒半生記』, 신태양사, 1960.

_____, 「春宵抄-문학少女K의追憶」, 『人生雜記』, 탐구당, 1962.

윤광옥, 「강경애 소설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전망」, 『한민족문화연구』, 한민족화학회, 2005.

이규희, 「강경애론」, 이화여대대학원 석사논문, 1974.

이무영, 「여류작가개평」, 『신가정』, 1934.2.

이상경, 「강경애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논문, 1984.

이청, 「여류작품총관」, 『신가정』, 1935.11.

임현영, 「비판적 사실주의의 소중한 열매」, 임현영·오현주 편, 『강경애전집』, 열사람, 1992.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연구』, 민음사, 1987.

정세현, 「6·10만세운동」, 『한국근대사론』 2, 지식산업사, 1977.

Abstract**A thesis on Kang Kyeong-ae**

: Focusing on the writer's consciousness

Kim, Nak-Hyeon |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writer's consciousness of Kang Gyeong-ae, who presented critical realist literature based on her intense perception of reality in the 1930s.

The extreme poverty that Kang Kyeong-ae experienced as a child became a key factor in her consciousness as a writer. Due to poverty, her mother remarried and started an unconventional family. Furthermore, her awareness of poverty led her to create works that depicted the suffering of women and their awareness of women's liberation.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she was a member of the Geunwoohoe group, which carried out an anti-imperialist, anti-feudal enlightenment movement.

Kang Gyeong-ae's husband, Jang Ha-il, who was a socialist with considerable literary knowledge, had a great influence on her consciousness as a writer, acting as both an ideological comrade and literary companion.

Kang Gyeong-ae recognized the colonial reality as a confronta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propertied class and the proletariat, and expressed constant interest and affection for the people living tragically there. As a result, the goal of Kang Gyeong-ae's literary ideology was the liberation of the proletariat, which she deeply longed for.

Keywords Kang Gyeong-ae, writer's consciousness, poverty, Jang Ha-il, liberation of the proletariat
